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임시 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확정된 조직 명단은 다음 주일 주보에 신겠습니다.
- 성탄축하예배 중, 입교서약과 세례 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입교 : 최지수 엄하민 이나영 정이안
세례 : 박인혁 진시우 구민준
- 송구영신예배가 31일(금) 11:30 대면과 비대면으로 있습니다.
개인별로 허리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공동체 종무식이 12월 29일(수) 11시에,
2022년 공동체 시무식이 1월 5일(수) 11시에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성탄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52 호
2021년 12월 2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선택적으로 자유를 절제하고 조심하는 가운데 약 2년 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했었는데 어느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마스크 너머에 있는 표정을 본지가 너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얼굴을 가리는 것은 가면이라고 부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되었습니다. 먼저는 얼굴을 보이지 않음으로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탈을 쓰고 춤을 추며 연극을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점을 재미를 첨가하여 즐기는 문화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평등한 만남을 가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변과의 전쟁이 잦은 곳에서 상대방에게 위협하여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비록 가느다란 마스크 한 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오래 흐르다 보니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만나도 서로의 표정을 알 수 없고 표현이 부족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상호간에 알기도 힘들어 진 듯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 가지로 상대방을 알아갑니다. 외국인을 처음 만났을 때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단어 몇가지로 우리는 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바디 랭귀지, 즉 몸짓을 이용해서 전달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되면서도 듣는 이유는 얼굴에서 드러나는 표정으로 나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보면 화가 나 있거나 무섭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표정이 경직되어 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웬지 모르게 바빠 보인다고 합니다.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쉽게 말을 걸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던 길을 돌아서고 관심가져 주며 내일처럼 일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놀랍다고 말합니다. 어려움 앞에서는 모두가 친절한 사람으로 모여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함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 있기에 또 기뻐합니다. 크리스마스 두달 전부터 자기가 갖고 싶은 선물을 고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가지고 싶은 것이 바뀌며 그 기대와 즐거움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는 좀 자라서 산타할아버지가 주는 것이니까 좋은 것(비싼 것)을 고르는 영리함도 보여줍니다.

여김없이 어제 성탄절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선물을 확인한 진용이가 민용이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이번 선물은 원하는 것을 받았지만 민용이는 원하던 것과 다른 색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진용이가 민용이에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민용아 니가 형하고 놀 때 양보도 해줘서 황금색으로 장난감을 췌나봐.' 그 말 한마디에 민용이는 신나서 '그래. 이 황금색 좋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칫 원하는 색상이 아니어서 실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형의 말 한마디가 더 즐겁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이런 것을 보면 아이들에게 배울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원하는대로 결과를 원하며 계획과 생각한 대로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얇은 마스크로 인해 멀어졌던 것에서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기에 강한 특성을 살려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관심에도 그 숨겨진 의미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고전 10:13

올 한해도 사랑방 식구들 모두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한주간의 말씀

“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누가복음 17장 1-37절

제목 :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용서, 감사, 헌신)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101 545 420 438

1-10 용서할 수 있는 믿음

해석: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

적용: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자/용서하자.

11-19 열 나병환자 한 이방인의 환자의 감사

해석: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방인 죄인도 해당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는다.

적용: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의 삶을 살자.

20-37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해석: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적용: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자.

성서일기

구원은 크고 넓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나 혼자 믿다가 죽고 나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이며, 믿음 안에서 살았던 모든 성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구원의 미래 모습입니다. 그 소망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며, 참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챙기는 한편 이웃을 돌아봅니다. 사탄과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음 가운데 살며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나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의 내면에서 울리는 신음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신음 소리로 인해 자신의 마음에 아픔이 느껴져야 합니다.

.....중략.....

나 혼자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영생을 맛보다가 영생에 이르는 것도 알고 보면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라는 거대한 그림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 조각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전체 그림 안에 둘 때 그 조각은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권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것은 그 드라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 담긴 구원의 크기와 넓이를 제대로 알아, 참된 소망을 품고 어떤 손해와 불편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으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피조세계를 돌보는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이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입니다.

지체들의 삶

김영봉 목사님의 [나는 왜 믿는가] 중에서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이불 펴기, 이불 정리하기, 밥상 닦기, 신발정리, 빨래개기, 설거지, 재활용쓰레기정리, 마늘 까기, 교회·마을청소, 화분에 물주기, 쌓인 눈 치우기, 동생이 어질러 놓은 장난감 정리하기, 안마하기 등등 12월이 시작된 후 꾸러기들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구두장이 마틴'처럼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접할 것을 준비하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부모님들과 의논해서 어디로 선물을 보낼지를 정하고 21일 화요일에 그동안 일한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한 명은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왔고 다른 친구들은 요르단 난민을 돕고 계신 선교사님께 보낼 현금을 들고 왔습니다. 22일 수요일에는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었지만 힘들다고 안하고 참 열심히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지 못하거나 가족이 너무 적어서 외로운 친구들에게 전해달라고 소홀음 행정복지센터에 맡겼습니다. 꾸러기들도 먹었지만 꾸러기가 먹은 것의 네 배쯤은 선물로 보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니라 꾸러기들이 한 일이니 살짝 떠들어 봅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올해 어린이학교 생활을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 매일 긴장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확진자 수를 확인했으며 아이들 등교 때 체온 체크를 시작으로 방역과 안전에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럼에도 올 일년을 돌아볼 때 종강발표회까지 큰 어려움없이 아이들과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주간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늦은 시간까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그동안 아이들의 수업 내용과 학교에서의 생활 배움과 가르침

을 말씀드리는데 긴장하는 마음으로 오셨던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들으시고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고 돌아가십니다.

어린이학교는 방학 과제물은 방학 전에 아이들 스스로 적어 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내용을 보시고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더 얹어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습면보다는 삶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부족했던 부분이나 자신감을 가질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과제를 줍니다. 선생님들이 내주는 과제물은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육임을 믿기에 내년의 어린이학교의 삶도 기대가 됩니다.

올 해 함께 한 어린이학교 가족을 포함한 사랑방공동체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교장 : 이월영 >

멋쟁이학교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멋쟁이학교는 완전한 방학이 시작되었고, 멋쟁이들은 각자만의 방식대로 방학을 즐기는 중입니다. 성탄절에는 서로서로 메리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바깥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오랫동안 뵙지 못한 친척을 뵙기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멋쟁이들이 하고 있다고 알려진- 늘어지게 자는 늦잠과, 밤늦게 까지 노는 것도 방학에 할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믿음으로 준비하다가 성탄절에 세례와 입교를 받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냈던 신앙고백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의 믿음이 더욱 탄탄하여지길 기도합니다. 이제 모두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연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마음을 잘 정리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며 2022년을 새로이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 Happy New Year!

< 교사 : 이어진 >

감 사

걷는 길에 문득 하늘을 보니 달이 휘영청 밝다. 너무 좋아서 새로 쌓은 돌담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보니 빙그레 웃음이 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되뇌이게 된다. 문득 이렇게 이유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오랜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날씨가 좋아서 감사, 필요를 채우심에 감사 등등 있었지만, 그저 가만히 하늘을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새어나온다. 아마도 이런 평화를 오랜만에 가져보아서 그런 것이리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이 채우심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처음 공동생활할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고, 무지 힘들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조건없이 감사했었다. 말이 좀 서로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냥 이 공동체에 있는 것이 행복했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주머니 사정)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냥 좋았었다. 아- 내가 잊어버린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감사한 것을...

나처럼 사랑방 지체들도 사랑방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과거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내가 그 속에 속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다. 지금은 마음이 부족하여도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한의 감사를 느끼며 살자 라고 나에게 소리쳐 본다.

그리고 기도해 본다.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루터기사랑방 이윤희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누가복음 2장 8-20절

인도 : 정재훈 목사

기도 :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코로나 안정화를 위한 기도>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이 감염병이 잦아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예수원을 위한 기도>
예수원의 식구들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맡겨진 중보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 공동체 학교 학기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 세례와 입교하는 사람들의 마음 준비를 위해서
 - 공동체 총회를 위해서.

<생활공동체 소식 >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주간을 지내면서 연속 기도회에 여러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관 넓은 홀에 6개의 기도처를 따로 준비하였고, 강단 위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구유와 조명으로 꾸몄습니다. 반짝이는 성탄트리에는 기도제목 쪽지를 묶어 서로 나누었고, 다른 사람의 기도제목을 하나씩 가져와 서로 중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와 추워진 날씨 탓에 많은 분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의미있는 시간으로 보내었습니다. 마당에 피워 놓은 모닥불이 추운 날씨에 방문한 식구들의 손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밤풍경이었습니다. 성탄축하예배 중에 입교와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7명의 학생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교인(입교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미뤄졌던 성례였기에 더욱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을 나누고, 예배 후에는 공동체 총회로 모였습니다. 역할 공동체 임원 및 교역자 그리고 사무국과 공동체운영위원회 임원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감사 두 분까지 선출하였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조직을 통해 새해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가득한 사랑방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쁜 성탄을 지내며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 정재훈 목사 >